11 제20234호

가정의 달 5월엔 순천만정원 오세요

네덜란드 주간 즐기고 프랑스 그림책 전시 보고 친환경 버블체험 하고 어린이 위한 공연 등 다채

순천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5월 5일부

터 8일까지 4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버블체험, 생태와 자연에 관한 OX 퀴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만화속 캐릭터와 사진찍기 체험, 드론 체험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 어린이날은 4일간의 연휴로 많

은 관람객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을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부터는 관람시간

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 내 야생동물원에서 는 거북이, 홍학, 앵무새 등을 철창이나 유

리관 너머로 구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

이들이 눈높이에서 보고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교감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정원에서는 네덜란드 전통의 멋을 즐길 수 있는 전통옷 입어보기와 네 덜란드의 감자튀김 및 와플 맛보기, 네덜 란드에서 직수입한 백합 구근을 판매한 다.

갯지렁이 갤러리에서는 5월 1일부터 31 일까지 프랑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어린이도서, 그림책 등 100여권의 원 서를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이국적인 문화 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정원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는 가든 버스킹 공연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다. 특히 입체영상관에서는 '하늘을 날고 싶은 아기새에게','나무는 변신쟁이'등 어 린이들을 위한 블랙라이트 공연도 연다.

순천시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이다양한 체험으로 가족애를 느끼고 소중한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양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탄력

지동마을 감정평가 실시 다음달엔 토지보상 협의

광양시가 '성황근린공원'을 지역 대표 명품공원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골약동 지동마을 주변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연령 37.8세)인 광양지역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이다.

광양시 도이동 산3-1번지 일원에 52 만5000㎡ 규모로 조성되는 성황근린공 원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게 이트볼장,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만 493억원이 소요 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광양시는 보 상을 3구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보상 1구역은 2016년~2017년, 2구역은 2018년, 3구역은 2019년에 각각보상할 계획이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광주일보**

이번 감정평가는 1구역 내 토지 122 필지(14만3433㎡), 건축물 31동, 농막 14동, 분묘 65기, 지장물 287건을 대상 으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사 3명이 감정한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보상비 65억원을 확보하고, 지난 1월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확정, 주민 6명이 참여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광양시는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5월 15일까지 보상금을 결정하고 5월 16일 부터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 410여억원을 들여 전체연장 640m, 도로폭 30m 규모로 금광아파트~성황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고, 성황동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간선 도로망으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만정원 추억 캔버스에 담아가세요

'거리의 화가' 프로그램 운영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갈 수 있는 '거리의 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미술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거리의 화가'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정원 방문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할수 있도록 정원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혹서기(7월 21~8월 9일)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연중 유료로 체험할수 있다.

순천미술협회 소속 위수환 화가는 "아름다운 순천만정원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즐겁다. 또 그림을 받아들고 웃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려주는 나까지 행복해진다"며 활짝 웃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종이 한 장과 필기구,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의자 한 쌍의 소박한 장소지만 순천만국가정원의 화려한 꽃과 나무들이 멋진 배경이 되어 준다"며 "순 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이 다양한 문 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고 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터키 엑스포 2016 안탈리아' 순천시 조성 한국정원 인기

순천시는 28일 "터키 '엑스포(EXPO) 2016 안탈리아'에 대한민국 대표정원으로 조성한 한국정원이 방문객들로부터 큰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이번 터키 엑스포 2016 안탈리아에 조성한 한국정 원은 순천만의 'S자 수로'와 갈대를 상징하는 연못 등 순천시 의 특징을 형상화했다.

순천시는 특히 한국과 터키의 우애를 상징하는 '우정의 종' 은 종각을 화려한 단청과 우아한 지붕의 곡선 등 한국의 미를 나타내 종을 치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또 지난 21일 순천시와 안탈리아시의 우호교류 협약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한국정원에 순 천시장의 오른발과 안탈리아 시장의 왼발을 새긴 기념물을 설 치했다.

순천시는 28일까지 한국정원에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 어린이 한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체험 주간을 운영하고 순천만 사진전을 열어 순천만을 홍보했다. 특히 이날 터키 EXPO 2016 첫 국가의 날 행사로 '대한민국의 날' 행사가 열려 한국정원 준공식, 국립국악단 공연, 기념식 등을 진행했다.

한편 '꽃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개막한 터키 EXPO 2016 안탈리아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여수광양항만공사 성과공유제 도입기관 인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대중소기업협 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관 으로 인증을 받았다.

공사는 올해를 성과공유제 도입 원 년으로 삼는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2 월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추진해 지난 3월 성과공유제 시행 지침 을 마련한 바 있다.

성과공유제는 올해 공사의 동반성장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 고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나누는 제도다. 또 성과공유제는 기업 네트워크 전 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관 인증은 성과공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 및 추진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중소기업협력재 단이 이를 확인하고 부여하게 된다.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은 "여수·광양항의 기업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입주 중소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성과공유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야생화협회 광양지부 첫 '야생화 초대전'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한국야생화협회 광양시지부가 29일 부터 5월 1일까지 광양커뮤니티센터에 서 첫 '야생화 초대전'을 개최한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야생화 협회 광양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야생 화 초대전'은 광양시의 문화예술 발전 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민과의 소 통을 위해 준비했다.

초대전은 29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40점의 각양각색의 야생화 가 전시된다. 차건미 광양시지부장은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회와 교류전을 통해 광양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야생화협회 광양시지부는 광양지역의 우수한 품종의 야생화를 연구·전시해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 를 제공하고 야생화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정원 수 관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 으며, 앞으로는 야생화 심기, 분재관리 등의 무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